

— at the — TONE TOP®

최고경영진,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거버넌스 관련 주제에 대한 간결한 정보를 제공

SEC의 새로운 기후 공시 규정이 이사회에 미치는 영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 기업의 증권 신고서 및 연례 보고서에 기후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최종 요구사항을 발표함으로써 지속가능성 보고에 있어 큰 획을 그었다¹. SEC는 최종 규정에서 보고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이 부족하여 투자자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얻고 분석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까지 보고 프레임워크를 선택하여 보고하고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은 투자자와 기타 이해관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후 정보를 자진 공개하고 있다. 2023년 PwC 및 워키바(Workiva)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당시 미국에서 공시가 아직 의무사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재 상장 기업 임원 중 95%가 지속가능성 보고를 우선시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²

기후관련 공시에 대한 SEC의 최초 제안은 2021년 처음 발표되었을 때 상당한 관심을 받았으며 동시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SEC는 정계와 재계의 응답자들로부터 24,000건 이상의 공개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중에는 의미 있는 우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결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초기의 일부 제안이 삭제되었다. 새로운 규정은 벌써부터 사법부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지만 이사회는 이를 인지하여 조직에 궁극적으로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이는 조직이 SEC의 기후 공시 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전략, 정책 및 통제와 관련된 검증과 자문 서비스를 포함하여 내부감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 이번 호 Tone at the Top에서는 이사회를 위해 이러한 핵심 고려사항 중 일부를 논하고자 한다.

변화하는 기대사항

SEC의 최종 규정은 강력한 보고 지침을 추가하여 기존의 공시 요구사항을 크게 확장하였다. 상장 기업이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회사의 전략, 운영 결과 및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관련 리스크와 조직이 이를 경감하거나 그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
- 일부 조직의 경우, 회사가 직접 통제하는 온실가스(GHG) 배출량(스코프 1) 및 회사가 사용하는 전력, 증기, 열 또는 냉방과 관련된 간접 배출량(스코프 2)에 대한 데이터. 또한 필수 공시사항에 대한 증명서도 제출해야 함.
- 상장 기업의 사업, 운영 결과 또는 재무 상태에 중요한(또는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는) 기후관련 목표치에 대해 가용한 데이터.
- 악천후와 기타 자연 조건이 재무제표(예: 비용 및 손실)에 미치는 영향.

컴플라이언스는 상장 기업의 규모와 공시 내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새로운 규정에 대한 SEC의 사실 자료는 다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링크: <https://www.sec.gov/files/33-11275-fact-sheet.pdf>

스코프 3 항목의 삭제

SEC의 초기 제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측면 중 하나는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즉 기업이 직접 통제하지 않지만 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었다. 이 범주에는 투자와 리스 자산과 같은 요인뿐만 아니라 조직의 공급업체와 벤더, 출장, 직원들의 통근과 같은 상당한 양의 전방 및 후방 배출량이 포함된다. SEC는 제안에 대해 수렴한 의견과 이 보고와 관련된 비용, 복잡성, 일관성 부족 및 잠재적인 신뢰성 결여를 바탕으로 최종 규정에서 이 항목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이 포함되었다면 중소기업이라 스코프 1 및 2 배출량 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대기업의 협력업체여서 스코프 3 배출량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많은 업체가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여전히 이해관계자로부터 자체 배출량을 보고하라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사회에 대한 초점

기후관련 리스크에 대한 이사진의 감독과 중대한 기후관련 리스크를 평가 및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는 SEC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SEC 상장 기업의 이사회에는 특별한 책임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회사는 다음 사항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 기후관련 리스크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이사회 위원회나 소위원회(해당 시).
- 이러한 위원회와 소위원회에 기후관련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 이들 그룹이 공시된 기후 관련 목표치 또는 전환 계획의 진척사항을 모니터링하는지 여부와 모니터링 방법.

기후관련 리스크에 대해 이사회의 감시가 부재하는 상장 기업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SEC는 또한 다음을 포함하여 이사회에 대해 제안된 요구사항 중 일부를 삭제했다.

- 기후 관련 리스크를 감시할 책임이 있는 이사회 구성원을 식별
- 이사회 구성원의 기후 전문성을 설명
- 기후관련 리스크에 대한 이사회 또는 이사회 위원회의 회의 주기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

세계내부감사인협회 소개

세계내부감사인협회(IIA)는 전 세계 230,000명 이상의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 세계적으로 185,000명 이상에게 공인내부감사사(CIA) 인증을 수여한 비영리 국제 전문가 협회이다. 1941년에 설립된 IIA는 표준, 인증, 교육, 연구 및 실무적 지침 분야에서 내부감사직종의 리더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theiia.org. 참조.

IIA 주소

1035 Greenwood Blvd.Suite 401
Lake Mary, FL 32746 USA

무료 구독

theiia.org/Tone을 방문하여 무료 구독을 신청하세요.

독자 피드백

질문이나 의견은 다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Tone@theiia.org.

번역: 이은주(CIA)

- 삼성전자 내부감사팀 근무
- SC제일은행 내부감사부 근무
- 한국씨티은행 내부감사부 근무
- 2003~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영어과 졸업
- 한-영 통역사, 제조, 금융, IT,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한-영 통역사 활동

기타 핵심 표준

SEC의 요구사항은 이사회가 알아야 할 유일한 요구사항이 아니다.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에 따른 유럽연합(EU) 기후 보고 규정은 2024 회계연도에 반영되어 2025년에 발표될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이는 사회 및 환경 데이터에 대한 보고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심지어 EU에서 운영되는 비 EU 기업에도 일부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상장 회사가 아닌 경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상장 중소기업은 간소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새로운 SEC 및 EU의 요구사항은 지속가능성 보고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의 급속한 전개를 반영하고 있다. 시장은 조직이 보고할 수 있고 보고해야 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로 대응하고 있다. 국제 지속가능성 표준 위원회(The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는 투자자, 기업 및 국제 정책 입안자의 요구사항을 충족 시키기 위해 의사결정에 유용하고 비교가능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단일 출처로부터 확보하고자 2021년 말 IFRS 재단에 의해 창설되었다. 2023년 중반 ISSB는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라는 두 가지 표준을 발표했다. ISSB 지침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글로벌 보고에 폭넓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64개 관할권에서 약 400개 조직이 ISSB 기후관련 보고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한다.³

내부감사가 제고하는 가치

IIA에 따르면 "조직은 ESG 보고가 반드시 전략적으로 구축된 내부통제제도를 기반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조직의 ESG 노력이 어떻게 서로, 조직의 재무에, 그리고 가치 창출과 연관되는지 정확하게 반영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 규정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내부감사가 제공할 수 있는 조언과 검증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부감사는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하고 관련 모범 사례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검토에 대해 통찰력과 새로운 규정 준수에 대한 검증을 제공할 수 있다.⁴

내부감사는 또한 다음을 할 수 있다.

- 기후관련 보고를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리스크 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제공한다. 내부감사인은 보고 지표의 정확성과 관련성을 검토하고, 보고가 공식적인 재무 공시 제출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기후 공시 제출자료에 대한 중대성 또는 리스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 관련 리스크를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감사 계획에 포함시킨다.
-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내부감사는 효과적인 지속가능성 통제 환경 수립에 대해 조언하고 가장 적절한 정량적 및 정성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고 지표를 권고할 수 있다.
- 조직에 대해 알고 있는 총체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 거버넌스의 효과성에 대해 조언하고 적절한 역할과 책임은 물론 교육 필요성을 식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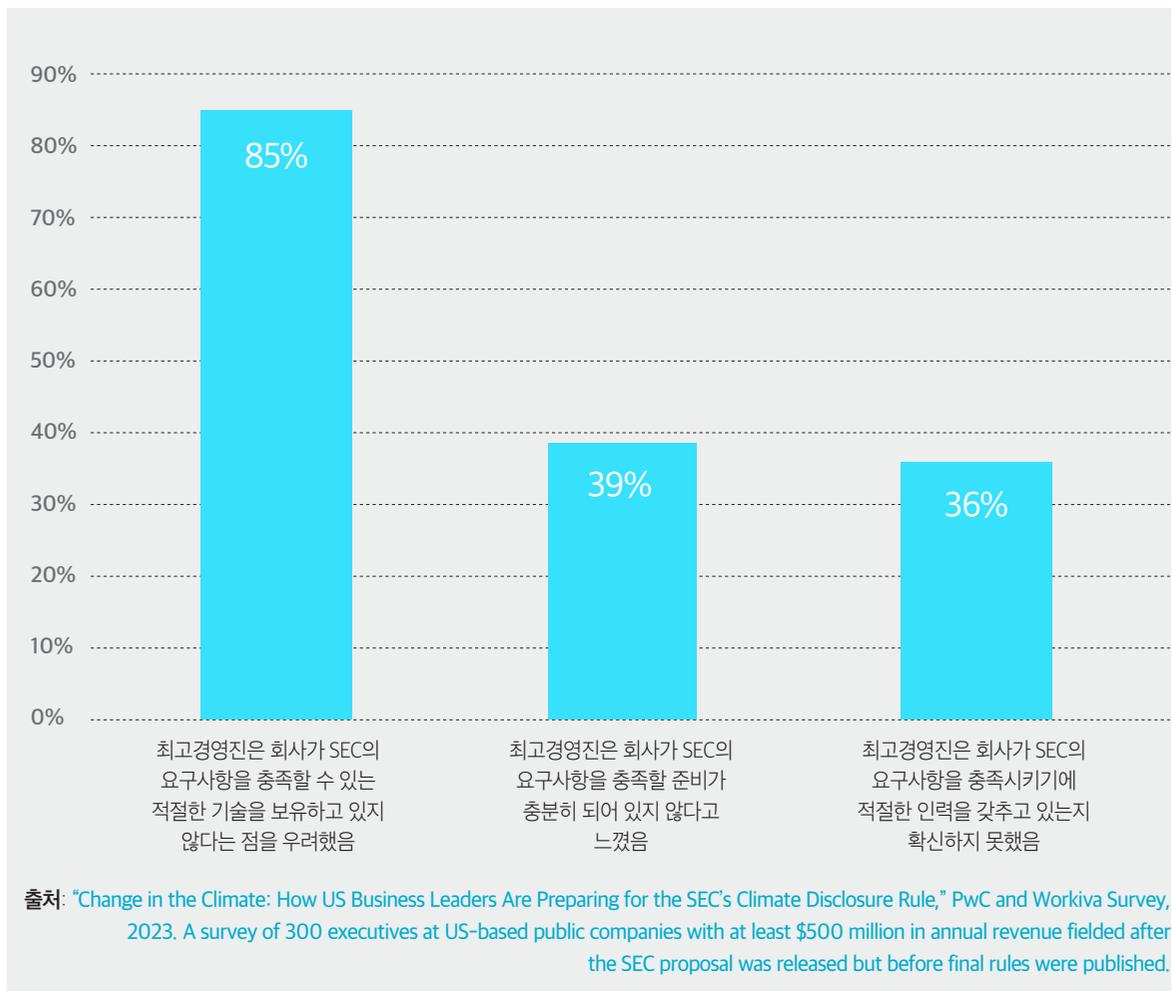
컴플라이언스를 넘어

"ESG 보고가 단순한 컴플라이언스 활동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은 기업 이사회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라고 KPMG는 말했다. 새로운 보고 규정으로 컴플라이언스가 주목받음에 따라 이사회는 기업이 규제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증할 뿐만 아니라 기후 이슈 및 기타 지속가능성 우려사항에 대해 최선의 관리 방법을 조언해 달라고 내부감사에 의존할 수 있다.

이사진을 위한 질문

- 우리 회사가 직면한 기후 관련 영향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된 리스크는 무엇인가?
- 데이터 수집 및 보고 메커니즘을 통해 규정 준수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 비(非)재무적 보고 조치를 위해 보고 체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 조직의 리스크 성향에서 기후는 어떻게 고려되는가?
- 이사회는 현재 기후관련 우려사항에 대해 어떤 종류의 보고를 받고 있는가? 이러한 보고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기업은 SEC 규정을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1 "The Enhancement and Standardization of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March 6, 2024.
 2 "Change in the Climate: How US Business Leaders Are Preparing for the SEC's Climate Disclosure Rule," PwC and Workiva Survey, 2023.
 3 "ISSB at COP28: Close to 400 Organisations Commit to Advance the ISSB Global Climate Baseline," ISSB, December 4, 2023.
 4 Internal Audit's Role in ESG Reporting: Independent Assurance Is Critical to Effective Sustainability Reporting, 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2021.
 5 "The SEC Final Climate Change Rule," KPMG, 2024.